

기자간담회 모두발언(2025.10.23.)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대외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AI 관련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고용과 소비가 약화되면서 지난해보다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유로지역과 중국은 재정 확대 등 경기 부양책에도 수출이 둔화되면서 성장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의 경우 미국에서는 관세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내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유로지역에서는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2% 내외의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기 국채금리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으로 하락하였고, 미 달러화는 주요국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하였습니다. 주요국 주가는 글로벌 통상갈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와 양호한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내수는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었지만 민간소비가 경제심리 개선과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으며, 수출은 대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이 지난 8월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과의 무역협상, 글로벌 반도체 경기,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방과 하방 양방향으로 모두 확대된 상황입니다. 특히 한·미뿐 아니라 미·중 간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이후의 수출과 성장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성장률 전망 수치는 협상의 결과와 그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서 11월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물가는 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이 각각 2.1%와 2.0%를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5%로 전월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과 내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지난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안정세가 이어지다가 9월 하순 이후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거주자 해외투자자금 수요 지속, 대미 관세협상에 대한 우려에 더해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으로 1,400원대 초반으로 높아졌고 국고채금리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가 금융안정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주가는 반도체 업황 호조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 등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의 영향 등으로 9월 중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었지만 수도권 주택시장은 9월 이후 가격 오름세와 거래량이 다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만큼 그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무엇보다 국내 경기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향후 성장경로에도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잠재해 있어 여러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상황을 좀 더 점검한 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다음주 APEC 회의를 전후하여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 한·미 및 미·중 무역협상의 결과가 향후 성장흐름을 가늠하는 데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연준의 10월 FOMC 회의 결과, 반도체 경기의 확장 속도와 지속기간 등도 면밀히 점검하여 내년 이후의 성장 흐름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통화정책 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환율의 경우에도 단기간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는 환율 상승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수요압력이 크지 않고 국제유가도 안정되어 있어 그간의 안정적인
흐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 면에서는 금
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성장 전망의
리스크가 상·하방으로 모두 확대된 데다 금융안정 리스크도 커진
만큼 기준금리의 추가인하 시기와 폭 등은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
터를 보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